

## 학제개편 간호대학생들의 4학년 진학경험\*

김 학 선<sup>1)</sup> · 차 진 경<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2011년 11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간호과를 운영하는 74개의 전문대학중 33개 대학에 4년제 학위과정 승격대학의 최종 승인을 발표하였으며(정규숙, 2011), 이를 근거로 하여 2012년 교육현장에서 4년제로 첫 신입 간호학과생을 모집하는 전문대학교가 등장하게 되었다.

1903년 보구여관 간호부양성소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간호 교육은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왔고 1955년 국내 최초로 4년제 대학과정이 이화여대에 개설된 이후 반세기 동안 간호학과 학제는 전문대학의 3년제와 일반대학 4년제로 이원화된 교육체계가 운영되어 왔다. 이원화된 학제를 통합하고자 하는 염원은 1980년대의 간호교육의 발달과제로 기본교육과정을 4년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써 구체화되었다(신미자 등, 2009). 이후 다각적인 노력이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이어져왔으며(대한간호 웹진기사, 2012) 결국 4년제로의 통합은 찬반 토론의 장을 거쳐서 전문대학교 3년제 간호과가 4년제 간호학과로의 전환이라는 법제화로 마무리 되었다. 이로써 간호학과는 대외적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원화되어오던 간호전공의 학제가 2011년 새로운 또 하나의 변화를 이룩한 것이다. 간호전공의 일원화는 국제 표준화를 통한 한국간호의 위상제고와 간호사의 역할 확대, 그리고 의료팀원으로서의 간호사 역량 강화 등으로(송지호, 2011) 더욱 진보된 전문성을 갖춘

간호인을 육성 배출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제의 개편은 전문대학 학제 안에서 수업을 받아오던 변화의 주체인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전문대학의 교육목표라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는 것이 목표이다(이승근, 2012). 목표가 다르다면 이를 시행하는 교육현실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학제를 개편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과 관련된 쟁점이 부상하지만, 교육과정 운영 현실과 교육과정 정책공동체의 논의에는 이 쟁점 해소에 접근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김 용, 2006). 전문대학의 틀 안에서 전문직업인 양성에 주력했던 간호대학들은 4년제로의 전환과 함께 교과목에 있어서 우선적 변화를 요구받을 것이며 목표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적지 않은 수의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있다. 2012년부터 모집이 시작된 전문대학교 내 4년제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우는 기왕의 4년제 학제에서 이룩한 간호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일, 그리고 3년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는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학제를 마무리하는 일이 남아있다. 학제개편의 과도기에 있는 변화의 주체자인 학생에 있어서 변동된 학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수는 상당수에 이르며 그

주요어 : 학제개편, 과도기, 질적연구, 간호대학, 학생

\* 이논문은 2012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1)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jinicha@wu.ac.kr)

투고일: 2012년 5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12년 11월 30일

기간 또한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호계 학제 개편 과도기에 해당하는 전문대 간호학과는 2011년 당시 74개로서 그 학생수가 8,420명에 달하고 이는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생 정원이 6,918명임을 감안할 때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전체 간호계 간호학생의 절반을 상회한다(정영희, 2011). 여기에 전문대 간호학과 중 4년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학교는 2012년 33개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전문대들이 4년제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수년에 걸쳐서 변동학제를 경험하는 학생 수는 현재 전문대학교 간호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1/3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학제개편에 따른 과도기 시점에서 이들 중 상당수는 그대로 3년제 학제로 졸업하거나 4년제로 전환된 새로운 학제의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대상학생 전원은 4년제로 학업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학제개편 혼란기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전체 간호학 졸업생의 과반수를 상회하고 학제개편 혼란기는 향후 1~2년의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학제개편으로 4학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해준다 하겠다. 그러나 개편된 학제 결정의 어려움을 겪었던 첫 졸업생과 4학년으로 올라간 학생 대상자들이 교육 현장에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는 학제개편이 이루어진 것과 동시에 이제 시작해야 하는 실정이다. 학제개편은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잠재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적응을 돕는 것이며, 단기적 목표는 학습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습자의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김성일, 2008).

이에 본 연구는 졸업을 유보하고 4학년으로 올라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제개편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학제개편이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학제개편에 따른 문제해결의 대안마련 등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제 개편에 따른 의미를 확인하고 학제 개편의 대상자를 위한 교육의 보완점을 파악하고, 학제개편의 당위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4년제 학제를 선택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듣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3년제 대학으로 입학하여 4학년으로 진학한 지금은 어떠한가'이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개인 면담과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주제 분석(qualitative thematic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 연구 대상자 및 대상자 보호

본 연구는 2011년 11월 29일에 4년제 학위과정 승격이 이루어진 W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실시한 후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내 비친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모두 여학생이고, 이들의 나이는 평균 22세였으며, 종교는 개신교 6명(31.6%), 불교 2명(10.5%), 무교 11명(57.9%),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201만원~400만원 12명(63.2%), 401만원~600만원 2명(10.5%), 601만원 이상 2명(10.5%), 무응답 3명(15.8%)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에게 대해서는 우선 연구의 시작을 위해 4학년 학생들이 모인 장소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하였고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일차 면담을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 과정을 거쳐 서면 동의서를 받고 수행하였다. 이때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수집된 자료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 인터뷰의 전 과정은 녹음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 수집 시 참여자의 이름을 영어 이름 혹은 별칭을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그리고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음성파일 및 신원정보는 안전한 장소에 잠금 보관하였다.

### 자료 수집 방법

연구진행을 위한 자료 수집은 개인면담과 포커스그룹면담을 통하여 2012년도에 4학년으로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고, 연구 결과 또한 일반화가 가능하고 널리 동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설명으로 기술되어야 한다(김두선 역, 1999). 이를 위해 먼저 개인면담 3명에 대해 심층면담을 시행하였고, 개인 면담 시 연구 참여자들이 4학년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2011년도의 경험과 짧은 기간이나마 4학년에 진학하여 공부한 당사자들의 경험을 들었다. 개인면담에서는 "4학년이 된 지금의 느낌이 어떤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라는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였으며, 참여자가 진술하는 개인적인 느낌과 생각에 대하여 반영적 기법을 사용하여 경험의 의미를 탐사하였다. 인터뷰 실행방법은 연구자의 연구실과 다른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휴게실을 사용하였으며 1회 개인 인터

뷰 시간은 20분에서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자의 이야기 내용 중에서 확실한 의미를 다시 확인하거나 추가적 질문이 있을 경우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2차면담을 실시하였다.

세 명의 인터뷰가 끝난 상황에서 유사한 내용의 반복이 보였으므로 연구자 회의를 거쳐 내용을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공통된 경험을 한 참여자들을 모아 주어진 주제에 대한 가능한 다양한 느낌이나 경험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법으로 참여자들의 경험과 견해를 듣기 위해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토의는 포커스그룹 연구방법(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및, 이선옥, 2000)의 절차에 따라 질문의 원칙을 숙고하고 연구문제를 명확히 하여 포커스 그룹 면담을 위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포커스 그룹 토의에서 사용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3년제 대학으로 입학하여 4학년으로 진학한 지금은 어떠한가?”, “4년제로 진학한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학제 개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이다. 16명에 대한 포커스 그룹 면담은 5~6명씩으로 총 세 그룹으로 주 1회씩 3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고 한 그룹 당 1시간 30분~2시간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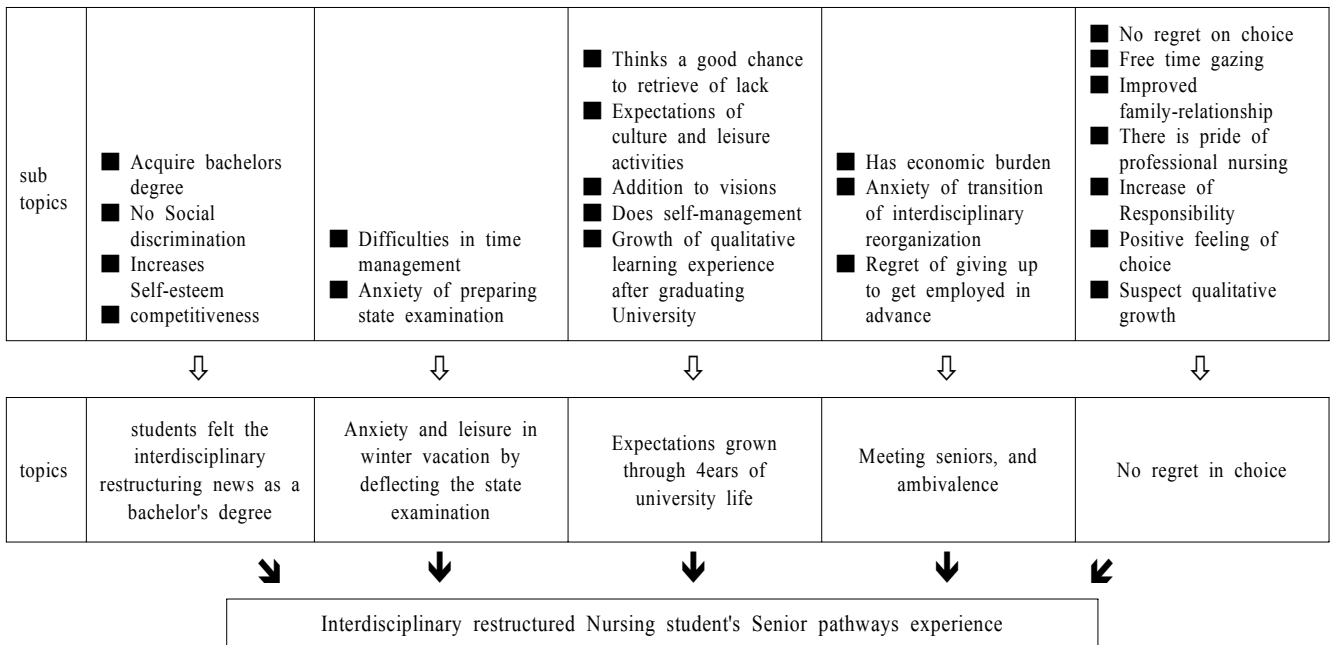
수집된 자료는 개인 면담과 포커스 그룹 면담의 녹음을 필사한 필사본과 면담 중에 연구자가 작성한 현장 노트 및 포커스 그룹 면담과 개인 면담 직후에 작성한 디브리핑 노트 등으로서, 모두 A4용지 약 101 페이지 분량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참여자의 경험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상황 설명적 차원의 자료 분석 방법인 질적 내용분석과 주제 분석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일차적으로 개방 코딩한 후 유사한 문장과 단락으로 모아 구분하고, 구분된 문장과 단락을 범주화하여 명명하였다 (Hsieh & Shannon, 2005). 그리고 내용 분석을 위해 연구자들은 총 10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분석과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주제 분석은 면담, 관찰, 현장 메모 등의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로부터 서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념을 찾아내고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심 주제를 도출해 내는 방법 (Braun & Clarke, 2006)으로 분석하였다. 이 모임을 통하여 자료수집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개념을 추출하고 범주를 명명하는 분석과정을 재확인하면서 다양한 상황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범주를 추가 수정하였을 뿐 아니라,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일지를 작성하여 연구의 일관성과 자료 분석의 중립성을 유지하였다.

자료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

자료의 분석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듣고 면담하며 그들과의 공감적 동일시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깊이 그리고 분석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또한 그것의 그들의 삶의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내적 타당도는 거의 완전한 수준에 가까이 가 있다고 평가한다(조영달, 2005). 신뢰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수행의 균형성, 민감성, 일관성, 정확성



<Figure 1> Topics and subtopics of interdisciplinary restructured nursing student's senior pathways experience

과 관련한 8가지 수행방법(Lecompte & Smith, 1993)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각의 포커스 그룹면담 종료 시 내용을 요약하여 참여자들에게 확인을 받았으며, 개인 면담이 종료된 후에도 면담 내용을 요약하여 면담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참가자 중 5명에게 연구 내용을 보여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연구자들의 준비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를 수학하고 질적 연구 세미나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질 관리를 하였고, 저자 한 명이 박사학위논문 작성 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자 두 명 모두 질적 연구에 의한 연구물을 여러 차례 학회지에 게재하였다. 연구과정 중 연구자들은 수차례의 연구 설계 및 면담과정을 검토하는 의견을 나누고, 질적 연구를 한 교수들로부터 연구 조언을 받았다.

## 연구 결과

### 학사증으로 다가온 학제개편소식

3년제 간호과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4년제로 학제가 개편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3학년 1학기 중반을 넘어선 시기였다. 과연 본인들이 졸업하기 전에 실현이 될 것인가 회의가 들기도 했지만 선택의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했다. 4년제로 올라온 학생들은 대부분 큰 고민 없이 진학을 결심하였고 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선택의 가장 커다란 결정 이유였다. 전문학사로 졸업을 하게 되면 입장에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학위과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4년제 진학은 학사가 된다는 의미로 학생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인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제개편은 3년제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직접적인 사회생활에서 편견이 있다고 여기고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손상 입은 자존심과 그와 관련된 자격지심을 넘어 자신에게 떳떳하고, 자존감이 향상되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원래 3년제로 들어올 때부터 3년제 4년제가 차이가 있어서 자존심에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학위를 나도 딸 수 있게 되어 마냥 좋았죠(참여자7)”

“4년제가 된다는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결정했어요 된다면 나는 한다 이렇게요 ..... 학사를 받고 싶었어요 ..... 일을 하면 내가 학사학위를 취득할 기회를 원할 때 받을 수 있지도 않고 불확실하니까요(참여자8).”

일부 학생들은 이제 끝나가는 학교생활을 그대로 사회생활

로 이어가고 싶기는 했으나 4년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주위의 권유로 마지막까지 마음의 갈등을 겪기는 했다. 그리고 4년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 가족,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에서 자긍심을 높여 주었고, 졸업 후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마음의 결정을 한 동기에는 한국사회가 갖는 현실적인 차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사증이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예상되는 경제적 차별,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위의 설득과 기대 때문이었다.

“4년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도움 될꺼라고 그러시고 부모님께서는 사회경험도 하셨고 하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히 학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꼭 가는 게 좋다고 하셔서 오긴 했는데(참여자8)”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사년제를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거 같은 그런 거..... 삼년제 나와서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참여자5).”

### 국가고시를 유보하고 맞이한 겨울방학의 여유와 불안감

4학년으로 진학을 결심하게 되자 국가고시는 1년 뒤의 일로 미루어졌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전문대학의 바쁜 학사 일정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갖게 된 또 한 번의 겨울 방학은 이러한 여유와 함께 제대로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불안감에 대해 참여자들의 생각은 그동안 3년제 학제의 여유 없이 짜인 학습 환경에서 갑자기 늘어난 4학년의 시간적 여유에 대해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담감은 스스로 계획하는 자율적인 수업 형태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늘어난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불안감으로 경험되면서 학교 교수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계획하여 시간관리 계획을 도와주기 바라는 측면도 나타났다.

“국시 준비도 물론 하기는 하죠 근데 내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변화에 대한 당황스런.....(참여자1)”

“지금 교수님들이 좀 절 도와줬으면, 절 좀 계획을 좀 짜주었으면 제가 계획을 제대로 짜본적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참가자3)”

그리고 1년 뒤로 미루어진 국가고시에 대하여 4학년에 진

학한 학생들은 3년제 학제에서 전공과목의 학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 4학년에 진학하여서는 교양과목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인해 국가고시를 준비해야하는 부담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고시를 치루지 않는다는 현실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4학년이 되어 이것저것 하다가 국시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전공을 하는 게 아닌니까 전공과목 공부한 내용이 조금씩 잊혀진단 말이에요(참여자 9)”

“약간 마음이 헤이해 진 것도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국시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 데..... 영어 학원 같은 것도 알아봐야겠다. 했는데 막상 정해진 것도 없었고..... 국시 오히려 더 떨어진다라는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참여자5)”

#### 4학년을 기다리며 키운 대학생활의 기대감

참여자들은 학제개편을 통하여 4년제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을 이제는 누리고 있다는 생각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특히 전공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교양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3년제로 졸업을 할 경우 전공영역은 그동안 해 온 공부의 양과 국가고시를 치루면서 검증이 될 것으로 자신하지만 졸업 후 환자의 질병을 돌보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경험하거나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고 여겨 항상 아쉬웠다고 하였다. 이러한 3년제 학제의 아쉬운 부분이 4학년을 경험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점에 대해 참여자들의 경우 그동안 커리큘럼에 쫓겨 하고 싶었고 또 대학생활에서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봉사활동이나 인문사회학 공부, 정치와 경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의 확보, 그리고 영어공부를 할 계획과 여행에 대한 꿈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살면서 간호라는 것은 사람과 목숨과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자부심을 느끼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거래(참여자 6)”

“3년제 다니면서 자기개발 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4년제 다니던 친구들이 하는 거 지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편안함이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8)”

“토익공부도 하고 컴퓨터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자격증도 따고 싶고(참여자3)”

“정치나 경제 특히 현대정치 이런 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참여자2)”

학교에 대해서도 개편된 간호학과에 대한 지원 분야의 기

대가 상승하게 되었는데 특히 전공영역의 교수인원 확보와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 그리고 면접기술과 취업에 대한 정보, 자기관리에 대한 조언, 교양의 선택폭과 교과방법론에 대해 변화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진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외모관리와 다이어트 그리고 요가와 같은 것에도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교수님 1명당 학생 수가 좀 줄어들면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도움을 더 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 장학제도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 했으면 (참여자)”

“학과에서 사용하는 건물도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은 과목도 생기고 교수님들도 오시고 그럴꺼라는 생각은 들어요(참여자4)”

#### 4학년과의 만남, 그리고 양가감정

친구들 중에 많은 수가 졸업을 해서 나가고 4학년 학기가 시작되자 새로이 펼쳐진 생활은 생각과는 달리 즐거움과 함께 실망을 느끼는 부분도 생겨났다. 3년 동안 누려보지 못한 시간적 여유는 방학동안 생각했던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만족감을 주었으나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성공적인 4년제에서의 성과들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났다. 그리고 전공과목을 포함한 학점신청 과목이 더 늘어나기를 희망했으나 교양과목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이 다소 실망스럽기도 했고 국가고시가 남아있는 입장에서 교양으로만 이루어진 4학년 수업구성은 부담이 되기도 했다.

“오히려 시간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게 힘든 거 같아요 사년제를 옴으로써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그게 부담감으로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담감(참여자2)”

“사년제를 하면서 처음 입학할 때는 삼년제라고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사년제가 되는 게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학을 다니면서 용돈을 제가 벌어서 썼는데 사학년은 생각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할러니까(참여자1)”

3년제로 졸업을 예상하였으나 갑작스런 학제개편이 단행되고, 4학년을 선택한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사회로 나간 친구들과 달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졸업한 동료들과는 달리 1년을 더 부모님에 의존해야 한다는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는 양가감정을 경험하였다. 또한 선 취업을 포기하고 4학년을 선

택하였기 때문에 졸업 이후 전보다 더 못한 곳에 취업이 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과 절대평가로 바뀐 성적관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년을 더 다니면 600 만원이상 깨지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나 부모님 힘드신데 내가 괜히 했나 하는 마음도 있어요(참여자7)”

“이미 붙은 병원이 있는데 4년제를 진학하고 나서 똑같이 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했고 학교가 아예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적 그런 거에도 영향이 클거 같아가지고 그런 점에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참여자1)”

### 후회 없는 선택

졸업을 미루고 새로이 주어진 한 해는 진로와 간호에 대해서 생각할 많은 시간과 함께 찾아왔다. 전문인으로서 무엇을 갖추고 사회로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오히려 전공을 이수한 후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시간이 주는 여유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개인적 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기쁨을 주었다. 자신이 관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자율성이 높아지고 자기성장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학제개편에 대한 결정을 통해 간호학 전공자로서 전문 간호직에 대한 정체성을 세워보는 기회가 되었고, 4학년 진학문제에 대해 가족들과 논의하는 가운데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대화하는 법, 사람 설득시키는 법, 인정하는 법, 편하게 하는 법도 간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이 1년은 버려선 안된다는 생각을 해요(참여자6)”

“진심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부분 찾아서 하고 이런 게 좋아요 내가 진짜 간호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참여자6)”

사회로 먼저 나간 친구들의 경제적 독립이 가끔 부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학사증을 따고 졸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족이나 학교에서 4학년에 거는 기대감에서 오는 막중한 책임감, 자긍심과 학창시절에 누리고자 했던 열정을 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선택 한 것에 대해 만족하며, 후회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3학년까지 아래에 있으니 더 잘 해야되고 뭐가

책임감이 더 막중해진 거 같아요(참여자 13)”

“4년제로 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후회도 없어요 너무 선택을 잘 한 것 같아요(참여자)”

## 논 의

본 연구는 학제개편이라는 간호계의 큰 변화의 원년에 3년제로 입학한 4학년 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이 경험한 학제개편의 함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은 4학년으로 진학한 19명의 학생들에게 ‘3년제 대학으로 입학하여 4학년으로 진학한 지금은 어떠한가?’였으며, 연구 결과 5개 주제로 그들의 경험이 분석되었다. 그 경험은 “학사증으로 다가온 학제개편소식”, “국가고시를 유보하고 맞이한 겨울방학의 여유와 불안감”, “4학년을 기다리며 키운 대학생활의 기대감”, “4학년과의 만남, 그리고 양가감정”, “후회 없는 선택”으로 도출되었다. 학생들이 경험한 5개의 주제와 관련하여 학제개편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겪었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3년제 학생들에게 자존감 회복과 기회의 균등에 대한 해답이 된 학사증, 본인의 선택과 다르게 주어진 4학년경험에서의 여러 가지 감정(여유, 불안, 기대, 양가감정), 그리고 수혜자 입장에서 후회없는 선택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학제개편에 우선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 전문대학의 간호과 학생들이 겪었던 사회적 편견 극복이 우선적으로 4년제 통합의 의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승근(2012)은 전문대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구조를 일컬어 한국의 학벌 중심사회 및 차별심화가 전문대학 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력별 임금 지수의 차이는 학습자의 좌절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박춘자(1995)도 간호전문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점으로는 학사학위를 받지 못하는데 오는 불만족이 높고 졸업 후에도 취업 시 보수가 국공립 병원이나 기관을 제외하고는 차등이 나며 승진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주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학제 일원화로 불식될 것으로 보였다. 이소우(2000)는 간호교육의 분석 및 평가에서 3년제 간호교육제도는 갈등과 대립적 정서를 만들었으며 간호학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사수준이어야하며 이것이 또한 세계적 추세라고 하였다. 더욱이 다른 전문 의료인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학사학위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는데 결국 본 연구에서 보여준 학제통합의 의미가 학생들에게는 학사증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학제개편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겪은 여유, 불안,

기대, 양가감정이 있다. 이는 4학년으로 올라가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시간적으로 겪은 감정의 변화인데 전공과목 이수를 모두 끝내고 1년이라는 학교생활의 기회를 더 얻게 된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으로 인한 마음의 여유와 이를 활용할 기대를 가득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공과 다소 거리를 두었다가 국가고시를 봐야하는 불안감과 연장된 교육기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양가감정을 호소했다. 학제개편과 함께 겪게 되는 이러한 감정의 표현은 이후 다각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자세한 원인을 밝히고 교과를 보완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교육개혁은 학습자를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고 틀이며(McCombs, 2003) 국내에서는 학제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시사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만한 심리학적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김성일, 2008). 본 연구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하는 감정적 패턴은 다소 복잡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분명 시간이 경과되면서 다소간 변화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개입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확대 적용한 연구를 통해 확인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결국 이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 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스펙을 쌓는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취미나 혹은 관심분야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에 맞게 개발되어야(김숙영, 정선이 및 황철일, 2011)함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간호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사회변화의 매개자로서 창조적인 사고를 하고, 간호대상자의 건강요구를 파악하며 독자적인 판단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여 대상자의 요구 해결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이광옥, 한영란 및 김희정, 1996)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에 교양과목을 포함한 교과과정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간호전공 학제의 일원화 이후 김미원, 박정모 및 한애경(2011)의 연구에서 주장한 간호학전공 학습자의 특성변화를 고려하고, 21세기 미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효율적인 교육과정으로서의 개선을 위한 간호교육과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간호교육과정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한 연구에 대해 동의한다. 또한 교양과목의 개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문대학의 다양한 수업개설을 위한 각 학교별 대안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졸업을 유보하고 1년을 더 투자해야하는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기울여 후속 연구와 대안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업연한의 연장은 경제적으로 취약

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정의 부족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던 3년제 간호학 과정이 1년 더 연장됨으로써 오는 경제적 부담은 대학지원 자체를 망설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약학대학의 6년제 학제개편이 논의 되었을 때 2년 연장이 경제적, 문화적 지원이 부족한 중하위계층의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양은배, 신태진, 김성학, 고요한 및 이승희, 2005)는 지적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4학년으로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 4년제로 일원화된 간호학과를 지원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원의 폭을 마련하는 방안마련과 이를 홍보하고 알리는 일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이 연구 참여시 밝힌 4년제가 된 후 학교에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보다 많은 장학제도, 국내외 인턴쉽, 취업프로그램 운영, 영어수업(실용영어, 토익준비), 간호연구 및 통계 등에 대한 요구였음을 기억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4학년 진학을 학교 측의 준비와 학생들의 기대 사이에 교과목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등의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경험으로 이야기한 것은 학제일원화의 성공적 출발을 점쳐볼 수 있는 의미가 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동시에 간호계 전체가 간극을 메꾸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 남았다는 과제로 여겨진다. 특히 1학기를 끝내는 시점에서 동일 학생 중 소수를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한 바에 의하면 4년제로 전환된 것을 가장 실감하는 부분이 병원채용과 관련하여 원서를 넣을 때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커트라인이 변화한 것이며 이러한 차이가 1년을 연장한 큰 보람이라고 말한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일찍이 이광옥 등(1996)이 대학과 전문대학의 간호교육과정을 비교하면서 국민 건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간호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대의 앞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3년제와 4년제의 이원화된 학제이며 따라서 일원화가 이루어질 때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명확히 추진해 갈 수 있다고 한 예견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것으로서 이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학제 개편 후 학교 현장에서 시도된 연구로써 학제개편에 따라 향후 수년에 걸쳐 예측되는 간호계의 혼란을 단축시키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경험적인 관점에서의 근거자료 제공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과 일원화

의 염원이 이루어진 현재의 성과는 간호학 전공자들 모두에게 부담인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향후 학제개편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더 많은 연구의 진전을 기대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학제개편에 의해 4학년으로 진학한 1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년제 대학으로 입학하여 4학년으로 진학한 지금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 질문을 통해 학제개편이라는 간호계의 큰 변화의 원년에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이 경험한 학제개편의 함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연구결과가 5개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그 경험은 “학사증으로 다가온 학제 개편 소식”, “국가고시를 유보하고 맞이한 겨울방학의 여유와 불안감”, “4학년을 기다리며 키운 대학생살의 기대감”, “4학년과의 만남, 그리고 양가감정”, “후회 없는 선택”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겪었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3년제 학생들에게 자존감 회복과 기회의 균등에 대한 해답이 된 학사증, 그리고 수혜자 입장에서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학제개편에 우선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본 연구가 학제개편에 따라 향후 수년에 걸쳐 예측되는 간호계의 혼란을 단축시키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경험적인 관점에서의 기본자료 제공이라고 보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학제개편과 관련된 학생들의 만족도와 간호계의 질적 성장 등의 기대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4년제로 전환된 전문대학이 대거 참여하는 광범위 양적 연구를 제언한다.
- 전문대학교 간호학과와 일반대학의 간호학과 교육목표 설정에 관한 논의가 요구되며, 그에 따른 교과목 편성에 관한 전문대학의 다양한 수업개설을 위한 각 학교별 대안이 요구된다.
- 학제변동 과도기에 학교를 마쳐야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점관리 및 교과목 이수와 관련된 3+1년 과정의 다소 유연성 있는 학과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4년제로 일원화된 간호학과 미래전망과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김두선 역. (1999).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사.  
 김미원, 박정모, 한애경 (2011). 4년제 간호학과 교과과정 분

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3), 414-423.  
 김성일 (2008). 학습자 중심의 학제개편:교육심리학적 공헌. *교육심리학회지*, 22(4), 859-880.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0). *포커스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김숙영, 정선이, 황청일 (2011). 국내 간호대학과 간호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 비교분석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41(1), 101-109.  
 김 용 (2006). 학제개편과 교육과정: 쟁점과 그 해결 가능성. *교육행정학회지*, 24(4), 289-312.  
 대한간호 웹진기사 (2012). *간호교육 4년 일원화, 꿈을 이루다*. 제50권 제1회 통권22호([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read\\_article.php?webzine\\_id=36&sub\\_cat\\_id=399&is\\_sub\\_no=631&article\\_id=881](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read_article.php?webzine_id=36&sub_cat_id=399&is_sub_no=631&article_id=881))  
 박춘자 (1995). 진국간호교육의 실제와 문제점-전문대학 교육과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 24-31.  
 송지호 (2011.02.28).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 방안*.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위한 국회공청회.  
 신미자, 강윤숙, 하나선, 공병혜, 김인숙, 홍윤미, 장금성, 이명하, 정경희 (2009). *간호역사와 철학*. 서울: 현문사.  
 양은배, 신태진, 김성학, 고요한, 이승희 (2005). 약학대학 학제 개선의 교육학적 타당성. *한국의학교육*, 17(3), 225-238.  
 이광옥, 한영란, 김희정 (1996). 대학 및 전문대학의 간호교육과정 비교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7(2), 361-383.  
 이소우 (2000). 한국간호교육 100년 발달사적 연구(1900-2000).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 303-326.  
 이승근 (2012). *전문대학 교육의 역사와 발전과정*. 2012 전문대학 교직원 연수 자료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54  
 정규숙 (2011.11.30). *내년부터 33곳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 운영'*. 간협신문.  
 정영희 (2011.02.28). *보도자료: 간호학제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http://forkorea.net/swboard/view.php?bcode=11&no=2409>  
 조영달 (2005). *제도공간의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Hsieh, H. F., & Shannon, S. 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1277-1288.  
 Lecompte, M., & Smith, D. A. (1993).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London: Academic Press.  
 McCombs, B. L. (2003). A framework for the redesign of k-12 education in the context of current educational reform. *Theory into Practice*. 42. 93-101.



# Experiences of Students of Nursing College in Transition From a Three-year to a Four-year Nursing Education System\*

Kim, HackSun<sup>1)</sup> · Cha, JinGyung<sup>2)</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are now pursuing a bachelor degree of nursing at a three year nursing school. **Method:** The study employ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or this study 19 nursing students of a reformed nursing college were interviewed. All of them are now taking the fourth-year classes. **Results:** The experiences of the interviewees a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five themes: 1) Education reform news that could make the bachelor degree happen; 2) Relaxed but uncomfortably long winter break; 3) Looking forward to the fourth year of nursing education; 4) Facing the fourth year and possible double classes; and 5) Unregrettable choice. The study found that the students are putting their best effort forward for the fourth-year classes in a hope that the bachelor degree could rebuild their self-esteem and self-identity as a full-member of the nursing profession. They also hope that the existing societal prejudice and differential treatments toward them will disappear in future nursing practices. **Conclusion:**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nursing education for reformed nursing schools.

**Key words :** Reform school, Transition,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college, Student

\* This present research was supported b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Research Fund, 2012.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a, Jin-Gyung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514 Iksan-daero, Iksan, Jeonbuk, 570-750, Korea

Tel: 82-63-840-1418 Fax: 82-63-840-1123 E-mail: jinicha@wu.ac.kr